

# 폐교위기 광양보건대 정상화 목소리 크다

### 광양시장·광양시의회 의장 전남도립대 전환 등 촉구 교육부 이달말 실사 결과 발표

설립자 비리로 폐교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과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교육부를 방문해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 또는 전남도립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대학이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방대 보호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3일 전남도에도 건의서를 보내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장학금 지원, 중장기적으로 도립대학 전환, 공영형 사립대 지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는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학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3년 개교한 광양보건대는 설립자인 이흥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

령 등의 여파로 지난해 대학구조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한때 3000여명이 다니던 광양보건대 재학생도 올해 1500여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주변 광양 덕례지구 원룸 공실률이 50%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광양보건대에서 현실사항을 벌였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유형으로 분류되면 부분적으로나마 국

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으나, 2유형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제한된다. 광양보건대측은 일단 1유형으로 분류돼 대학이 정상화되는 단초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도립대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환영한다”며 “전남도와 광양시, 시의회 등 전남지역사회에서도 대학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무등산 수박 본격 출하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서 농민들이 탐스럽게 익은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광주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은 15일부터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공동 직판장에서 8kg 2만원, 16kg 10만원, 20kg 18만원 등으로 판매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소규모 공중시설 경사로 설치 인권위 권고안 복지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중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서구, 아파트·사업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시 서구가 아파트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한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들이 직접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기본적인 인명구조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을 교육한다.

또 단순한 이론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을 가정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CPR인형(심폐소생술 실습인형)을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지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희망주민은 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062-350-4143)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도로교통법 사각’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매년 130건

3년간 전남대 34건 조선대 17건

대학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월 23일자 6면)과 관련해 광주·전남 등 전국 대학교내에서 최근 3년간 400건에 육박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대학의 교통안전실태·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등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다.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해 결과 510대 중 437대(85.7%)가 과속하고 있었다.

또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다.

최근 3년간(2015~2017)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으로, 이 중 전남대가 34건(8.6%), 조선대가 17건(4.3%)였다. 전남대·조선대학교 내 사고 대부분은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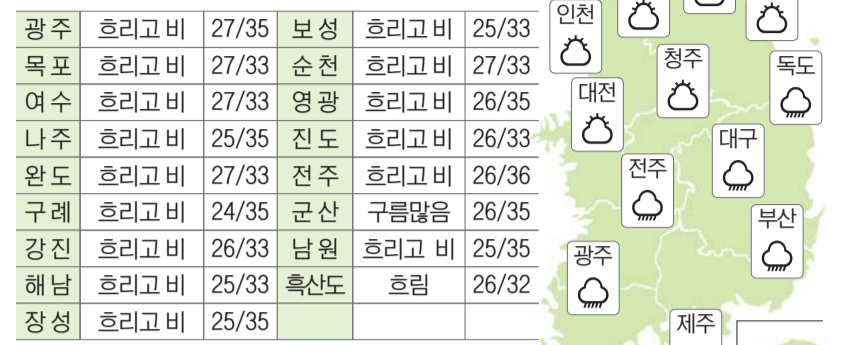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달뜨기 09:51  
해질 19:22 달짐 22:06

반가운 비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1.5~2.5	동~남동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0
	면바다(동) 남동~남	1.5~2.5	동~남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동~남동	1.0~2.5	동~남동	1.0~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5	05:03
여수	22:18	17:18
	05:31	11:51
	17:47	--:--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	☀	☀	☀	☀	☀	☀
26/33	25/34	25/34	25/35	25/35	25/34	25/34

### 장석웅교육감 “외부 인사청탁 있었다”

“선거때 지지 여부도 일정 부분 고려”... 논란 예고

취임 후 첫 교원 정기인사를 단행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전남도의회 등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사·군 교육장 등 장학관 보직 인사에서는 ‘선거때 타 후보를 지지했느냐’ 여부도 ‘일부 고려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을 지지 하지 않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14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회, 주요 기관장, 언론 등으로부터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분에 관해 청탁은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방문은 전남 있었던 9월 1일자 교육청 주요 보직 및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청탁자 소속 기관 등을 언급한 것은 외부 인사청탁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도 청

탁을 거절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올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를 지지한 분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전남 22개 사·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운데 통상 임기(2년)를 채우기 전 교체된 5명의 교육장 등을 포함한 장학관 인사에서 적어내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때 저를 지지했는지 여부가 이번 인사에서 중점 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니나 일정 부분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 교육장 등 장학관의 경우 파당을 지어서 활동하기도 했다”며 “일부의 경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남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